pISSN 1226-4474, eISSN 2982-68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3, No. 3, September 2026, 151-162
https://doi.org/10.15284/kjhd.2026.33.3.151

KJHD

국내 대학생의 그릿(Grit) 연구 동향

Research Trends on Grit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1차원고접수: 2026.04.10. 수정원고접수: 2026.08.31. 최종게재결정: 2026.09.19.

이상옥[1] · 현주영[2] · 손은령[3]
[1]충남대학교 교육학과 BK21 사업단, 연구교수
[2]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3]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Lee, Sang Ok[1]
Hyun, Jooyung[2]
Son, Eun Young[1]
[1]Dep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Dep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의 그릿(Grit)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학문적 경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Bpia, KCI, RISS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등재 학술지 논문 252편을 선정하여 발행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통계기법, 연구유형, 주요 변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그릿 연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양적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회귀분석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셋째, 변인 간 구조적 관계 검증 및 영향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넷째, 의약・보건계열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다섯째, 일반 대학생은 심리・정서 관련 변인이, 의약・보건 및 예체능계열은 전공・학업 관련 변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그릿 개념 정립, 질적・혼합연구 확대, 다양한 전공 및 변인을 고려한 비교연구와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 진로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요어 대학생, 그릿, 학업, 진로,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grit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and identify academic trends and implications. A total of 252 articles published in accredited journals between 2016 and 2025 were selected from DBpia, KCI, and RISS and analyzed by publication year, participants,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al techniques, research types, and major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grit research increased overall during the period. Most studies employed quantitative methods, with regression analysis being the most frequently used statistical technique. Research primarily focused on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nd their effects, and nursing and health-related field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studie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variables were most frequently examined among general college students, whereas major- and academic-related variables were predominant in medicine and health-related fields and arts and sports disciplines. Future research should establish a culturally grounded conceptualization of grit, expand qualitative and mixed-methods research, conduct comparative studies across diverse disciplines and variables, and develop practical programs. These findings provide a basis for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to enhance college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life satisfaction.

Keywords *college student, grit, academic achievement, career, research trends*

Corresponding to 현주영(Hyun, Jooyung)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Dep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gloria0721@kore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 탐색, 관계 형성, 가치관 정립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권석만, 1997; 안혜연, 이혜지, 2021). 이 시기는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므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요구된다(송한슬, 최윤정, 2020). 특히 대학에서는 이전의 학교 환경과 달리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조되는 환경으로, 대학생은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는다(김태량, 정영미, 2025). 한편,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구조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하며,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장기적인 목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야기한다. 그 결과 진로와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휴학이나 학업 중단과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한다(문승태, 주지영, 20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우리나라 대학생은 학업 과정과 진로 계획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24)의 '2024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자퇴, 미등록, 제적 등 학적 변동에 해당하는 대학생 수는 약 10만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대학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집계된 이 통계는 재학 중인 대학생 집단의 학업 지속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상당수의 대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학업적 위기는 졸업 이후의 진로 장벽으로도 이어진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9.5%에 머물렀다.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공공기관 취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이 지표는 졸업 직후 대학생 집단이 마주한 진로 적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학업 및 진로상의 어려움은 대학생 시기가 지니는 발달적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아넷(Arnett, 2000)은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시기를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로 개념화하였는데, 이 시기는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정체성 탐색과 진로 결정이라는 발달과업이 집중되는 불안정한 전환기로 설명된다. 이러한 발달 단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장기적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심리적 특성인 그릿(grit)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은 크게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노력의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목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는 '흥미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이다(Duckworth et al.,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개인은 어려운 과제 수행 과정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며(이지영, 2017),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란, 손영우, 2013). 또한 그릿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적응적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승태, 주지영, 2020; 윤옥희, 최성우, 2022; 한천우, 2020).

현재 국내에서 그릿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은 학계의 양적 성장을 진단하기 위해 활발히 시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홍승희, 현용찬과 박정환의 연구(2021)는 국내 그릿 연구의 초창기부터 축적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발행연도, 학술지명,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릿 연구는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향 분석 연구가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모두 포괄하거나 일반 성인 집단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윤옥희, 최성우, 20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승희 등의 연구(2021)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다 보니 연구대상을 거시적 범주로만 구분하여 대학생 집단만의 고유한 진로 및 학업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윤옥희와 최성우의 연구(2022) 역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학생이라는 '성인기 진입기'의 발달 단계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범주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박봉환(2024)이나 오예현의 연구(2025) 역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동향 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여, 대학생 집단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그릿 연구 중에서도 그릿을 독립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릿을 종속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무엇이 대학생의 그릿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선행요인 규명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본 연구가 주목하는 흐름은 '그릿이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진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어 연구질문 자체가 상이하다. 그릿을 외부 자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물로 보기보다 학업 및 진로 발달을 견인하는 주도적인 내적 자원으로 접근할 때 대학 현장의 실천적 개입 방안에 보다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김유니, 정하은, 양수진, 2024).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그릿을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동향분석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연구 대상을 단순히 생애주기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벗어나, 성인기 진입기 대학생들의 실제적 삶과 진로 스트레스를 규정하는 핵심 환경인 전공계열을 독자적인 분석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는 성별이나 학년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보다, 대학생이 속한 학문적 맥락이 그릿 연구의 경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간호・보건, 예체능, 호텔관광・외식 등 특정 전공 집단에서 그릿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공계열별 분석이 대학생 집단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학년이나 성별과 같은 다른 인구학적 특성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활용되거나 단순 기술통계 수준에서 다루어져,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독립된 분류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독립・매개・종속 변인을 혼재하여 분류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그릿을 독립변인,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릿이 대학생의 삶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릿이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주요 변인을 '진로 및 취업, 전공 및 학업, 심리 및 정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문적 맥락을 대변하는 전공계열별 경향을 파악하고, 그릿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 252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생 그릿 연구의 다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진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학생 그릿 연구의 연도별 게재 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 그릿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 그릿 연구의 연구유형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 그릿 연구의 전공계열에 따른 분포와 추이 변화 양상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5. 대학생 그릿 연구의 주요 관련 변인은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의 학술적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가이드라인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기준으로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검색 단계에서는 국내 주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DBpia(누리미디어), KCI(한국연구재단),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게재된 국내 KCI 등재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그릿', '대학생' 그리고 '청년'을 핵심어로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별 검색 결과를 취합한 결과 총 517편의 문헌이 식별되었다.

둘째, 선별 단계에서는 식별된 517편 중 서지정보가 중복되거나 원문 열람이 불가능한 논문을 제외하였다. 이어서 연구진 2인이 독립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1차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논문 총 185편을 배제하였다. 구체적인 배제 기준은 ① 동향분석 및 메타분석 연구, ② 연구 대상이 일반 대학생이 아닌 경우, ③ 국내 학술지이나 외국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④ 그릿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연구 등이다. 이 단계를 통해 총 332편의 논문이 선별되었다.

셋째, 검토 단계에서는 선별된 332편의 논문 전문을 전수 정독하며 연구 목적 및 분석 유목과의 적합성을 심층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앞서 설정한 배제 기준에 추가로 해당하거나 데이터가 불충분한 논문 80편을 제외하고, 최종 단계에서 총 252편을 최종 분석 대상 논문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25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발행 연도별 추이, 연구 대상(전공계열), 연구 방법 및 통계 기법, 연구 주제 및 주요 변인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문헌을 분석 유목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2인이 합의 코딩(consensus coding)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교차 검증을 통해 각자 독립적으로 코딩한 결과를 상호 비교·검토하였으며, 분류 항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논문의 원문을 공동으로 재검토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된 결과만을 최종 분석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수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매개변수 분석 도출 과정 역시 동일한 독립 검토 및 최종 합의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문헌 선정 과정은 체계적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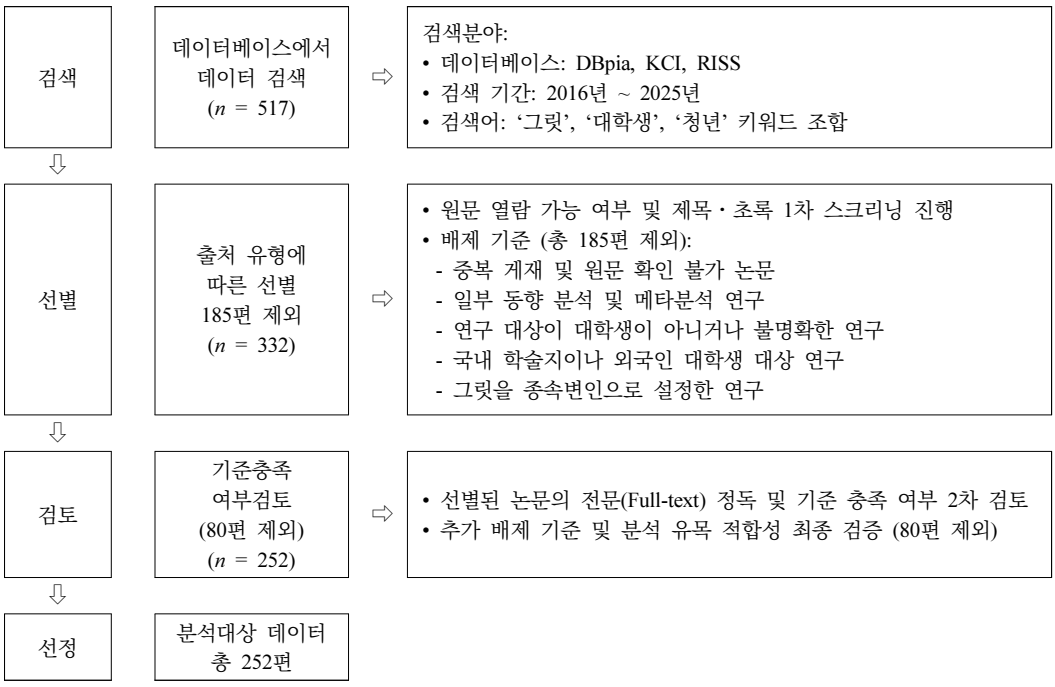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 선정 절차

고찰 및 동향분석의 엄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PRISMA 2020 지침(Page et al., 2021)을 참고하여 진행하였으며, 표준양식을 준수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2. 분석기준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윤옥희, 최성우, 2022; 홍승희 등, 2021)의 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은 발행연도, 연구방법 및 통계기법, 연구대상 대학생의 전공계열, 연구유형, 주요 관련 변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릿 관련 주요 변인 영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째, 성인기 진입기(emerging adulthood) 대학생 집단이 마주하는 발달과업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여(Arnett, 2000), 대학이라는 제도적 환경 내에서 요구되는 '전공 및 학업',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는 '진로 및 취업', 자율성 확장 과정에서의 심리적 적응을 반영하는 '심리 및 정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그릿의 이론적 속성(Duckworth et al., 2007)에 근거하여, 실제적 성취 결과로 발현되는 외적・도구적 지표(진로, 학업)와 그 과정을 지탱하는 내재적・심리적 지표(심리 및 정서)가 함께 검토되도록 분류틀을 구성하였다. 세부 분류 범주는 표 1과 같다.

Ⅲ. 결과 및 해석

1. 발행연도별 추이 분석 결과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물에 대한 연도별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는 총 252편으로 2016년 1편을 시작으로,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 52편(20.63%)으로 그릿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과 2023년이 각각 36편(14.29%), 2024년 35편(13.89%), 2020년 28편(11.11%), 2021년 26편(10.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 초기인 2016년은 1편(0.40%), 2017년은 7편(2.78%), 2018년은 9편(3.57%)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는 2019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발행 추이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발행 편수를 대상으로 Mann-Kendall trend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 그릿 연구의 발행 편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적($\tau = .85$, $p < .001$)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연도별 발행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분류범주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초사항	발행연도
연구대상	대학생 전공별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	양적연구 (통계분석- 구조방정식, 회귀분석, 평균차이분석(t-검증, 분산분석), 군집분석 및 잠재프로파일,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질적연구, 혼합연구
연구유형	변인 간 실증적 영향 관계(대상 비교연구, 그릿과의 구조적 관계 및 영향요인 연구), 그릿 개념과 관련된 연구,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변인	관련 요인(진로, 학업, 삶의 행복, 자기계발)

표 2. 발행연도별 편수 추이 (N = 252)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편수 (%)	1 (0.40)	7 (2.78)	9 (3.57)	22 (8.73)	28 (11.11)	26 (10.32)	36 (14.29)	36 (14.29)	35 (13.89)	52 (20.63)

2. 연구방법별 추이 분석 결과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250편(9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는 각각 1편(0.40%)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을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이 163편(65.20%)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순서대로 구조방정식 모형(SEM) 74편(29.60%), 평균차이 분석(t-test, ANOVA) 44편(17.60%), 군집 및 잠재집단 분석 8편(3.20%), 확인적 요인분석 6편(2.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가 주로 변인 간의 영향관계와 매개・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질적연구 1편은 9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그릿 개념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인지, 정서, 행위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대한 인식, 열정의 유지, 노력의 지속의 네 가지 속성이 있음을 드러냈다(이지연, 2019). 혼합연구는 설문조사(154명)와 심층면담(4명)을 병행하여 양적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어 학습 참여자들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릿의 끈기와 인내의 요소들인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붙들고'와 같은 표현을 드러냈다(하명애, 2020).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별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연구유형별 추이 분석 결과

동향분석 대상 문헌들의 연구유형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 실증적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총 242편(96.0%)이었다. 세부 양상을 살펴보면 '그릿과의 구조적 관계 및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230편(91.2%), 이러한 영향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전공계열이나 학년, 성별 등 연구대상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종단적・횡단적으로 비교 분석한 '집단 비교연구' 형태의 논문은 12편(4.8%)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비교연구'는 실증 연구 내부에서 보조적인 연구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그릿

표 3. 연구방법별 추이(중복허용) (N = 29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양적연구	전체 통계	1	7	10	25	30	30	38	48	45	61	295(100)
	구조방정식	1	3	2	8	7	8	18	5	10	12	74(25.1)
	회귀분석	0	1	5	12	15	15	18	30	29	38	163(55.3)
	평균차이 검증	0	1	1	4	5	5	2	11	6	9	44(14.9)
	군집・잠재 프로파일	0	0	1	1	2	1	0	1	0	2	8(2.7)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0	2	1	0	1	1	0	1	0	0	6(2.0)
질적연구		0	0	0	1	0	0	0	0	0	0	1(0.4)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개념을 규명하는 혼합모형										
혼합연구		0	0	0	0	1	0	0	0	0	0	1(0.4)
		(설문 + 면담)										
합계		1	7	10	26	31	30	38	48	45	61	297(100)

표 4. 연구유형별 추이(중복허용) (N = 252)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그릿 개념연구		0	0	0	2	1	1	0	0	0	0	4(1.6)
변인 간 실증적 영향 관계	구조적관계	1	5	7	19	24	22	36	33	35	48	230(91.2)
	집단 비교연구	0	0	1	3	4	1	0	1	0	2	12(4.8)
	합계	1	5	8	22	28	23	36	34	35	50	242(96)
척도개발과 타당화연구		0	2	1	0	1	1	0	1	0	0	6(2.4)
합계		1	7	9	24	30	25	36	35	35	50	252(100)

개념 연구 및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는 10편(4.0%)으로 나타났다. 연구유형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4. 전공계열별 연구 성향의 연도별 추이 변화 양상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의 전공계열별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총 252편의 논문 중 전공이 명시된 연구 136편을 대상으로 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향분석 대상 논문들이 표집한 '연구대상 대학생의 전공'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분석 대상 문헌의 연구대상(전공) 분류에 있어 주관성을 배제하고 학술적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제시한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 조사의 '대학 학과(전공) 분류 체계'를 선행 적용하여 기준을 수립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4). 이에 따라 국내 대학생 그릿 연구들의 세부 전공학과들을 공인된 표준 계열 위계에 맞추어 인문・사회, 의약・보건, 이공, 예체능, 교육, 전공 미특정으로 범주화하였다. 더불어 특정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개별 전공계열과 구분되는 독립 범주로서 '일반대학생(전공 미특정)' 단락을 추가 설정하여 분석의 포괄성을 확보하였다.

전공 정보가 미기재된 116편의 연구는 전공별 특성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계열별 분포 산정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독립된 양상으로 취급하였다. 전공이 명시된 136편 중 의약・보건계열이 86편(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30편(22.1%), 인문・사회계열 16편(11.8%), 이공계열 2편(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의 전공계열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특정 전공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종단적으로 뚜렷한 편중과 고착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첫째, 의약・보건계열(간호학 등)은 연구 초기부터 현재까지 양적 성장을 견인하며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18년 2편에 불과했던 의약・보건계열 연구는 2021년 10편, 2023년 22편, 2025년 21편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전공 명시 연구(136편) 중 86편으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둘째, 예체능계열(무용, 체육 등)은 2020년 이후 대학생 그릿 연구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는 변화를 보였다. 2019년까지 연간 1 ~ 2편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 6편, 2023년 10편으로 급증하며 의약・보건계열 다음으로 높은 연구 비중(22.1%)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가시적인 수행 성과와 열정이 핵심인 예체능 분야에서 비인지적 자원인 그릿의 효용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최근의 학문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다.

셋째, 인문・사회계열(항공서비스, 관광・호텔 등)은 특정 시기에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였다. 2017 ~ 2018년 각 1 ~ 2편 수준에서 2023년 3편, 2025년 5편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 전체 전공 연구 중 11.8%에 그쳐 발달단계상 다각적 진로 탐색을 거쳐야 하는 인문사회 집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공계열(공학) 및 교육계열(유아교육)은 연구 공백과 단절 현상을 나타냈다. 이공계열의 경우 연구

표 5. 전공계열별 대상 추이 (N = 136)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의약보건계열	0	0	2	5	7	10	12	22	7	21	86(63.2)
예체능계열	0	0	1	2	3	0	6	10	3	5	30(22.1)
인문사회계열	0	1	2	1	0	2	1	3	1	5	16(11.8)
이공계열	1	0	0	1	0	0	0	0	0	0	2(1.5)
교육계열	0	0	0	0	1	0	0	0	0	0	1(0.7)
기타	0	0	0	0	1	0	0	0	0	0	1(0.7)
합계	1	1	5	9	12	12	19	35	11	31	136(100)

주. 의약보건계열(간호학, 치위생, 헬스케어, 응급구조), 예체능계열(무용, 체육, 음악, 공연예술, 모델, 미용, 조경), 인문・사회계열(일본어, 비서학, 항공서비스, 관광・호텔, 외식조리), 이공계열(공학), 교육계열(유아교육), 기타(경호학).

극초기인 2016년과 2019년에 각 1편씩 총 2편만이 확인되었을 뿐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으며, 교육계열 역시 2020년 1편에 그쳐 연구대상의 편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특정 전공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대학생(전공미특정)' 범주는 10년간 총 116편(46.03%)으로 매년 높은 비중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는 전공과 관계없이 성인기 진입기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발달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전공의 직업적·학문적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전공맥락에 따른 그릿의 발현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대상의 전공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연구의 축적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공계열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5. 주요 관련 요인별 추이 분석 결과

II-2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라, 독립변인 및 매개변수로서의 그릿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실증 연구 242편을 대상으로 주요 관련 변인이 어떤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연구대상 대학생의 전공계열별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그릿 개념 연구(4편) 및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6편) 등 총 10편의 문헌은 통계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분석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였다.

먼저 전공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 연구에서는 심리 및 정서 44편(35.5%)이 가장 많았으며, 전공 및 학업 관련 요인 43편(34.7%), 진로 및 취업 37편(29.8%)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반면 의약·보건계열 전공에서는 전공 및 학업이 53편(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 및 취업이 17편(20.5%), 심리 및 정서가 13편(15.7%)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6. 일반 대학생(전공 미기재) 주요 관련 요인별 추이(중복허용) (N = 124)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진로와 취업	0	1	0	4	6	4	7	7	1	7	37(29.8)
전공 및 학업	0	1	2	2	3	7	7	8	5	8	43(34.7)
심리 및 정서 (삶의 행복, 건강, 자기계발)	0	2	4	7	7	2	3	5	6	8	44(35.5)
합계	0	4	6	13	16	13	17	20	12	23	124(100)

주. 1) 진로 및 취업(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성,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포부, 진로미래, 진로결과기대, 진로성숙도, 진로태도성숙, 진로선택몰입, 취업준비행동,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2) 전공 및 학업(학업적응,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참여, 학습만족도, 학문적응, 학문적창의성, 메타인지전략,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적 자기조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지속, 학업지연행동, 학업착수, 완수지연행동, 수업만족, 교육성취도, 학습몰입, 영어학습동기, 성취목표, 중도탈락의도, 지속적 참여의도, 애교심),
3) 심리 및 정서(심리적 안녕감, 정신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우울, 삶의 만족, 행복, 행복증진, 회복탄력성,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실패반응성, 번아웃감소, 창의적 사고, 미래 성공에 대한 기대, 미래시간조망, 기업가정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동기, 마인드셋,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동, 주관적 건강, 운동몰입, 운동지속, 스마트폰 중독, 도움요청, 사회적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표 7. 의약보건계열 대학생 주요 관련 요인별 추이(중복허용) (N = 8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전공 및 학업	0	0	2	3	6	5	7	13	4	14	54(64.3)
진로 및 취업	0	0	0	1	1	2	2	6	1	4	17(20.2)
심리 및 정서	0	0	0	0	0	3	3	3	2	2	13(15.5)
합계	0	0	2	4	7	10	12	22	7	20	84(100)

주. 전공 및 학업(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도,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메타인지,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속의향, 전공만족도, 전공결정능력, 간호전문직관, 창의융합역량,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적응, 임상실습적용, 임상추론역량, 핵심간호술 수행, 간호실무준비도, 돌봄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심리 및 정서(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우울, 소진, 건강증진행위).

표 8. 예체능계열 대학생 주요 관련 요인별 추이(중복허용) (N = 29)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진로 및 취업	0	0	1	1	1	0	0	2	2	0	7(24.1)
전공 및 학업	0	0	0	1	1	0	6	4	1	2	15(51.7)
심리 및 정서	0	0	1	0	1	0	0	3	0	2	7(24.1)
합계	0	0	2	2	3	0	6	9	3	4	29(100)

주. 진로 및 취업(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통합체육지도), 전공 및 학업(대학생활적응, 학습지속의향, 학업열의, 학업노력, 학습전략, 선수만족, 무용완성도, 무용몰입, 목표달성, 열정과 수행, 무용참여, 무용공연자신감, 운동지속의도, 운동지속), 심리 및 정서(회복탄력성, 정신건강, 심리적 행복감, 긍정심리자본, 혁신행동, 우울감).

예체능계열 전공에서는 전공 및 학업이 15편(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 및 취업과 심리 및 정서가 각각 7편(24.1%)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그 외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외식・조리전공, 비서학, 항공서비스전공, 관광・호텔・항공학과, 일본어, 관광 등을 대상으로 총 1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대학생활적응, 학업지속의향, 삶의 만족도, 자기주도학습능력, 친사회적행동 등에 그릿이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에서는 2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진로준비행동, 성실성), 교육계열에서는 유아교육 전공을 대상으로 한 편의 연구(창의융합역량)가 확인되었다. 기타 전공은 경호 전공을 대상으로 한 편의 연구(진로준비행동)가 수행되었다. 주요 관련 요인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Ⅳ. 논의 및 결론

첫째, 발행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그릿 연구는 2016년 1편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우상향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25년에 52편(20.63%)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Mann-Kendall trend test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τ = .85, p < .001)이 입증되었다. 이는 그릿 연구가 국내 학계에 소개된 이후 끊임없이 확산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윤옥희, 최성우, 2022; 홍승희 등, 2021)와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 증가는 최근 국내 대학생 집단이 겪는 높은 중도 탈락률과 진로 미결정 문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와 맞물려,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장기적 목표를 견인하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그릿의 실천적 가치에 학계와 대학 현장이 주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권정희, 정미예, 2019;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7).

둘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99.2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에서도 구조적 관계(회귀분석 및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92.0%)에 편중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변인 간 영향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그릿이 개인의 경험과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형성 과정과 내면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분석 대상 문헌 중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는 각 1편에 그쳤다. 질적연구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서적 경험과 심리적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윤옥희, 최성우, 2022; 홍승희 등, 2021), 향후에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인내와 끈기의 질적 속성을 탐색하는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그릿이 '끈기', '투지', '집념'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유사 변인들과의 개념적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내 연구가 주로 활용하는 그릿 척도(Duckworth et al., 2007)의 하위요인인 '흥미의 일관성'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측정 타당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어(이수란,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1), 한국 대학생의 발달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척도의 타당화 연구도 함께 요구된다.

셋째, 연구유형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 실증적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242편(9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그릿의 개념적 본질을 탐색하거나 척도를 개발・타당화한 연구는 10편(4.0%)에 불과하였다. 이는 국내 그릿 연구가 변인 간 관계 검증에는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그릿 개념 자체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와 척도 타당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변인 간 관계 검증뿐 아니라 그릿의 개념적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와 그릿 증진을 위한 실제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로 주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공계열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중 특정 전공을 명시한 연구 136편 중 의약・보건계열(간호학 등)이 86편(6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예체능계열(22.1%), 인문・사회계열(11.8%) 순으로 나타났고, 이공계열과 교육계열의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편중은 간호・보건계열이 국가고시, 면허 취득, 임상실습 등 구조화된 직업 경로를 지니고 있어 학업 및 진로 관련 변인과 그릿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예체능계열 역시 수행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전공 특성상 그릿의 효용성에 주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그릿의 발현 양상 차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특정 전공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 대상 연구(46.03%)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공과 무관하게 성인기 진입기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발달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 흐름으로서 전공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공계열과 교육계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연구 공백이 있는 전공을 포함한 폭넓은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주요 관련 변인을 전공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전공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 연구에서는 심리 및 정서(35.5%), 전공 및 학업(34.7%), 진로 및 취업(29.8%)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반면, 의약・보건계열(63.9%)과 예체능계열(51.7%)에서는 전공 및 학업 관련 변인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공계열에 따라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구체적인 학업・진로 과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공계열, 교육계열 등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전공에서도 그릿과 관련 변인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그릿과 진로, 학업, 심리・정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특히 의약・보건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이공계열과 교육계열에서는 연구가 매우 드물었고, 그릿의 개념적 본질을 탐구하거나 실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질적・혼합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에서는 전공계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관련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진로 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진로 및 심리・정서 변인이 고르게 나타난 일반 대학생 집단에게는 자기탐색과 목표설정을 돕는 개입이, 전공 및 학업 관련 변인의 비중이 높았던 의약보건・예체능계열 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실습 과정에서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개입이 상대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은 본 연구의 동향분석 결과에 근거한 잠정적 제언이며, 실제 개입의 효과성은 별도의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둘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 질적연구와 혼합연구, 그릿의 개념적 타당화 연구, 실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대학생의 발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척도 타당화 연구 역시 요구된다. 셋째, 전공계열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부족

한 이공계열과 교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전공계열 간 비교연구를 통해 그릿의 발현 양상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의 삶에 미치는 선행 기제로서의 그릿을 규명하고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설정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 인해 그릿을 종속변수로 다룬 주요 연구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국내 대학생들의 그릿이 지닌 다양한 인과적 역동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릿을 종속변수로 다룬 문헌들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대학생의 그릿 자체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선행 예측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동향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릿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과 현장 효용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분석 대상 논문이 양적 관계 검증에 치우쳐 있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이나 구체적인 임상·교육적 개입 효과를 다룬 개입 연구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대학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그릿 프로그램 및 상담 개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문헌 고찰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집된 문헌을 분석 유목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주관성을 통제할 수 있는 평정자 간 신뢰도 지표(inter-rater reliability)를 명시적으로 산출하지 못했다. 비록 두 연구자가 정기적인 교차 검증과 합의 코딩 프로토콜을 거쳤으나 분석의 객관성을 통계적으로 완벽히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수행될 동향분석 연구에서는 분류의 투명성과 방법론적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ohen's kappa 등의 통계적 신뢰도 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보고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 교육기본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12. 30).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세종: 교육부.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권정희, 정미예 (2019). 대학생의 행복추구경향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9), 345-369. https://doi.org/10.21509/KJYS.2019.09.26.9.345

김유니, 정하은, 양수진 (2024).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에 따른 정신적 안녕감의 차이: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인간발달연구, 31(3), 57-71. https://doi.org/10.15284/kjhd.2024.31.3.57

김태량, 정영미 (2025). 대학생이 인식하는 그릿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문화기술의 융합, 11(6), 251-259. https://doi.org/10.17703/jcct.2025.11.6.251

문승태, 주지영 (2020). 대학생이 지각한 그릿(Grit)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3(3), 87-107. https://doi.org/10.32341/JCER.2020.9.33.3.87

박봉환 (2024). 청소년 그릿에 관한 연구 동향. 아동교육, 33(2), 137-147. https://doi.org/10.17643/KJCE.2024.33.2.08

송한슬, 최윤정 (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65-83. https://doi.org/10.32341/JCER.2020.03.33.1.65

안혜연, 이혜지 (2021). 대학생의 그릿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동가족치료연구, 19, 49-63.

오예현 (2025). 청소년기의 그릿(Grit)과 적응에 관한 국내 동향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22(3), 181-199. https://doi.org/10.34244/JFOYS.2025.22.3.181

윤옥희, 최성우 (2022). 성인학습자의 그릿(GRIT) 연구 동향 및 주요 변인 분석. 평생교육·HRD 연구, 18(2), 31-58. https://doi.org/10.35637/klehrd.2022.18.2.002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투지(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이수란,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1). 한국형 그릿 척도개발 및 타당화: 측정학적 문제와 개념적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0(3), 351-387. https://doi.org/10.22257/kjp.2021.9.40.3.351

이지연 (2019). A Concept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Grit Using Hybrid Model.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5(12),

141-153.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9.15.12.141

이지영 (2017). 대학생의 그릿(Grit)과 어려운 과제 수행의 관계: 자기조절 효능감과 몰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7). 대학생의 그릿과 자율성, 마인드셋 그리고 학업지속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2), 45-69. https://doi.org/10.21509/KJYS.2017.12.24.12.45

하명애 (2020). 영어 저성취 대학생의 그릿과 영어 학습 동기 탐색. 영어영문학연구, 46(1), 237-264. https://doi.org/10.21559/aellk.2020.46.1.012

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대학생의 실제 전공과 희망전공 간 불일치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천우 (2020). 전문대학생의 성장신념, 그릿, 메타인지 및 진로준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문제연구, 33(4), 191-215. https://doi.org/10.24299/kier.2020.33.4.191

홍승희, 현용찬, 박정환 (2021). 그릿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융합정보논문지, 11(6), 131-138.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6.131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Mulrow, C. D., Shamseer, L., Tetzlaff, J. M., Akl, E. A., Brennan, S. E., Chou, R., Glanville, J., Grimshaw, J. M., Hróbjartsson, A., Lalu, M. M., Li, T., Loder, E. W., Mayo-Wilson, E., McDonald, S., McGuinness, L. A., Stewart, L. A., Thomas, J., Tricco, A. C., Welch, V. A., Whiting, P., & Moher, D. (2021).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BMJ, 372,* n71. https://doi.org/10.1136/bmj.n71